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희망 염원 2022
전주매일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음 12월 1일) 제2934호 대표전화(063)288-9700 www.jjmaeil.com

도, 거리두기 강화 '오늘부터 2주 더'

정부 방침 따라 조치 연장
송 지사 "3차 접종 동참을"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한 긴급방역강화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역지표가 호전되지 않아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고, 유행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이 기간동안 병상확충 등 의료체계 확충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의료 대응력 확보를 위해 총 1,409병상 확보를 위해 병원별 1:1 밀착 관리로 지난 연말까지 53병상, 2022년 1월 말까지 368병상확보 목표 달성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으로 전환한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 첫 유입 확인 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환자는 332명(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이중 전북도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124명이며,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115명을 상대로 검사 중에 있다.

전북도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시설별 전수검사 및 주기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익산시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공공시설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미크론 자체 검사가 가능하며, 1일 이내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도청직원 1일 14명을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전주시에 지원하는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2차 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제도 시행 계도기간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유효 접종일 등을 집중 홍보하고, 이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20세 미만 확진자는 총 764명으로 전체 발생환자의 24.4%에 이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에서 지속적으로 20~3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방역이 더 우선인 위중한 상황으로 방역당국의 온라인 비대면 수업전환 행정명령 등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 주기를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불가피한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고통과 희생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주시는 동안 전북도는 병상, 의료인력 확보와 3차접종 그리고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께서는 3차 접종, 특히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통합계발계획 승인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관광레저용지(1지구)내 조성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통합개발계획이 새만금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이하 센터)'는 2022년에 착공해 2023년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약 4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4만1,839㎡(건축면적 3,516.79㎡)에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리더센터(본부), 대집회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는 세계잼버리대회 기간 동안 운영본부와 잼버리 종합병원 등으로 활용되고, 그 이후에는 센터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축제(케이팝 축제 등), 전시, 공연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교육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본 사 인 사

▲최 대 희
임 : 기자
명 : 편집국 경제부

〈1월 1일자〉

붉게 떠오른 임인년의 첫 태양

임인년(壬寅年)의 첫해가 떠오른 1일 군산시 비응항에서 시민들이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19와 여러가지 사회 갈등으로 힘들었던 지난 한해를 저 멀리 떠나보내고 새해에는 따뜻함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 2022년 새해, 전북에게 바란다

'자립', 지역 발전의 키워드

'호남' 이라는 테두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전북의 지속가능 성장 위해 지혜 모아야 할 때

전북은 여전히 추락하고 있다.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전북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다. 이래서는 쉽게 전북의 미래가 그려질 수 없다. 전북 미래의 과제부터 찾아야 할 때이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하다. 청장년층의 수도권 이탈과 저출산·고령화 때문이다. 전주는 한 때 전국 7대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17위 도시로 크게 밀렸다. 다른 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바로 인구 유출에 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먹고 살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전북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절벽' 현상도 발생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초·중·고교의 절반가량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물론 인구 감소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 차원의 시급한 문제다. 인구 감소 대책과 고령화 대안이 절실하다. 전북의 고령화는 농촌지역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농촌 황폐화는 갈수록 심각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다.

비록 인구나 경제 규모가 작아도 전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전북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인의 의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 상당수 전북인은 냉소적 반응부터 보인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한다. 미래를 여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전북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야 할 때이다.

전북인은 다소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가 먼저 바라본 뒤 추진한다. 선도적이거나 벤처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일처리에 앞서 주변을 바라보는 신중함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실리보다 체면을 더 중시하는 경향도 크다. 전북인은 대체로 추진력이 떨어진다. 전북인은 결단력이 다소 부족하다. 신중하고 꼼꼼하다는 특징은 좋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부족하다. 추진력 부족은 전북인의 큰 약점이다. 융통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 약점이다. 주관과 소신도 뚜렷하지 않다. 전북인은 단결력이 떨어지고 응집력이 강하지 않다.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북인은 다소 의존적이다. 시간이 가거나 여건이 조성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달이냐는 식의 의존적 자세는 떨쳐내야 한다. 소극적 자세는 전북인의 커다란 약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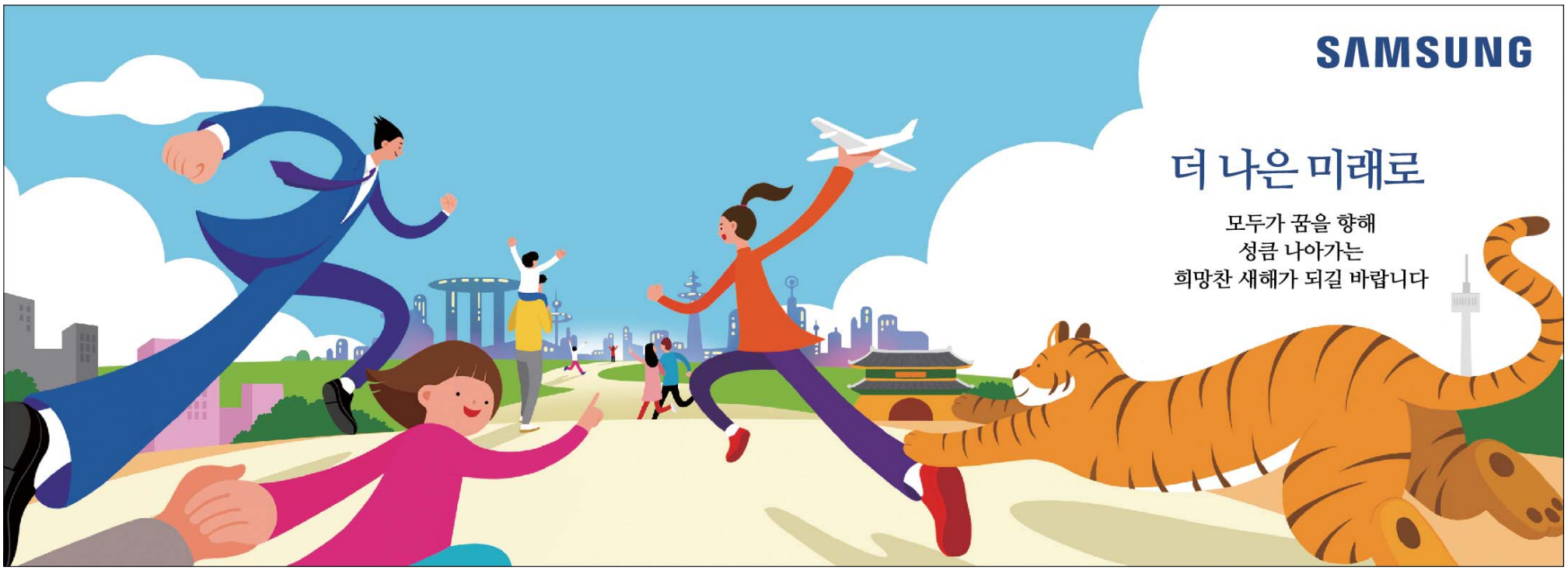
전북인은 여전히 중앙으로부터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무기력에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 부처에 전북 출신 인재가 적다는 소리도 여전하다.

정치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홀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도내 정치권의 무기력증도 심각하다. 경쟁력을 찾기가 어렵다. 전북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중앙 정치 존재감도 미미하다.

전북인은 스스로 변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 현실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 호남이라는 테두리에서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는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범도민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도 많다. 조례 제정으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도민들에게 범도민 의식개혁 운동을 알리고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 및 동참에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의식 개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전북 도민들은 패배 의식이 깊다. 그동안 경제적 수치나 정치적 위상 등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왔다. 이제는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복규 논설위원